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

남북미중 4자 정상 참석 가능성... '종전선언' 급물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28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 추진 보도까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합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미완의 과제인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라 달랐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평양에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인데, 북미 대화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신중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합류 가능성은 시 주석의 베트남행 보도가 나오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베트남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합류한다면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만일, 시 주석의 베트남행까지 확정된다면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역사적인 다자협상의 장이 마련되고, 평화체제 논의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형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종전선언을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그려왔다. 종전선언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남북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에 '올해(2018년) 종전선언 추진'을 명시했고,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가 가시권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을 둔 북미 간 이견으로 관련 논의는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협상의 대가로 종전선언을 제시했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이후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됐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도리어 종전선언 대신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며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종전선언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 신년회견서 "시기 조정됐지만 살아 있다" 아직 시진핑 참석여부 불투명 정치적 선언 건너뛰고 곧장 평화협정 논의 관측도

적 조차인 종전선언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 관측이 힘이 실리기도 했다. 이번 2차 북미회담 의제에 '종전선언 추진'이 포함된다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때문에 그간 중재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도 전격적으로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시 주석의 베트남행 여부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전선언으로까지 판이 커진다면 북미회담이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도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북미 간 협상 이행 속도에 따라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곧장 평화협정 프로세스를 가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없이 정전협정 체결(북한·미국·중국)이 한 단계 높은 차원인 평화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에서도. /뉴시스

안호영 의원, 9일부터 장수서 의정활동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 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오는 9일부터 장수군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진행한다.

안호영 의원은 9일 번암면과 산서면을 시작으로, 10일 장수읍, 11일 천천면·계남면, 12일 계북면·장계면 등 7개 읍·면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의정활동보고회를 통해 작년을 비롯 그간 의정활동에서 펼친 원내 및 국회활동, 법률 제개정안 발의, 국가예산 및 특별교부세 확보 등과 함께, 각 읍·면의 현안 추진사항과 민원 해결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확정된 새만금극대공항 및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타면제 등을 소개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 여당이 필요함을 역설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장수군에서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계기로 주민을 자주 찾아 밭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한발짝 더 뛴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안 의원은 의정활동 2년 6개월여 동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고강기 부규법 등 총 44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중 16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난해에도 19건을 대표발의해 3건의 본회의 의결을 이뤄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금융도시 전북' 발돋움 초석 마련되나

세계 3대연기금이자 6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법이 국회를 통과해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수 의원, '산은·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 수도권·지역 양극화 현상 해소 균형발전 실현 이바지 기대

여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금융·교육·의료·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대도시 몰림현상은 현행에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지만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연기금전문인력 양성법에 이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선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다"며 "이를 위해 연기금전문인력양성법을 대표발의, 작년 말 국회를 통과시켜 그 초석을 만들었으며, 최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은행 등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들의 전주 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전북 내에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이전시켜 그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황교안 "전북에 맞는 경제정책 펼칠 것"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설 명절 이후 첫 정치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보수결집과 함께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7일 한국당 전북도당을 방문한 황 전 총리는 당원 간담회를 열고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안보는 너무 불안하다"고 현 정국을 비판한 후 "망가져 가는 나라를 바로 잡는 데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황 전 총리는 "군산조선소가 동 중원과 지역 군산공장 폐쇄,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을 하라 등 전북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만큼 전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관심을 갖고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지를 상승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황 전 총리



는 "자유한국당이 힘을 내고 있고, 모이고 있고, 이겨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내년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면서 밝힌 후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이번 당 대표에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후보 등 3명의 후보가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진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